

2025

우석대학교 자체평가(종합) 보고서
〔요약본〕

2026년 6월

우 석 대 학 교

2025년 자체평가(종합) 보고서-요약본 목차

제 I 장 대학 현황	1
제 II 장 종합 및 논의	
1. 대학경영 및 사회적 책무	8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11
3. 교원 및 직원	13
4. 학생지원 및 시설	16



2025 자체평가(종합) 보고서

제 I 장

대 학 현 황

1.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
2. 주요 연혁
3. 행정조직 및 기구표
4. 교수 · 직원 · 학생 현황
5.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6. 주요 시설 · 설비 현황
7. 예 · 결산 현황

1.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

구분	내용	
설립목적	•우리 대학은 〈黃金百萬兩 不如一敎子〉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력과 신념을 갖추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구현함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음 •공동체적 가치관이 뚜렷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실용적 지식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을 육성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인간존중의 숭고한 정신을 실현함을 교육목적으로 함	
교육목표	교육목표	주요 내용
	자기분야에 탁월한 전문인 양성	•자기 분야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분야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탁월한 지식을 갖춘
	소신과 품격을 지닌 실천인 양성	•변화를 인지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지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갖춘
	헌신과 열정이 있는 봉사인 양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인간존중의 가치를 높이고 소통능력을 개발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가치관과 뚜렷한 소신을 갖추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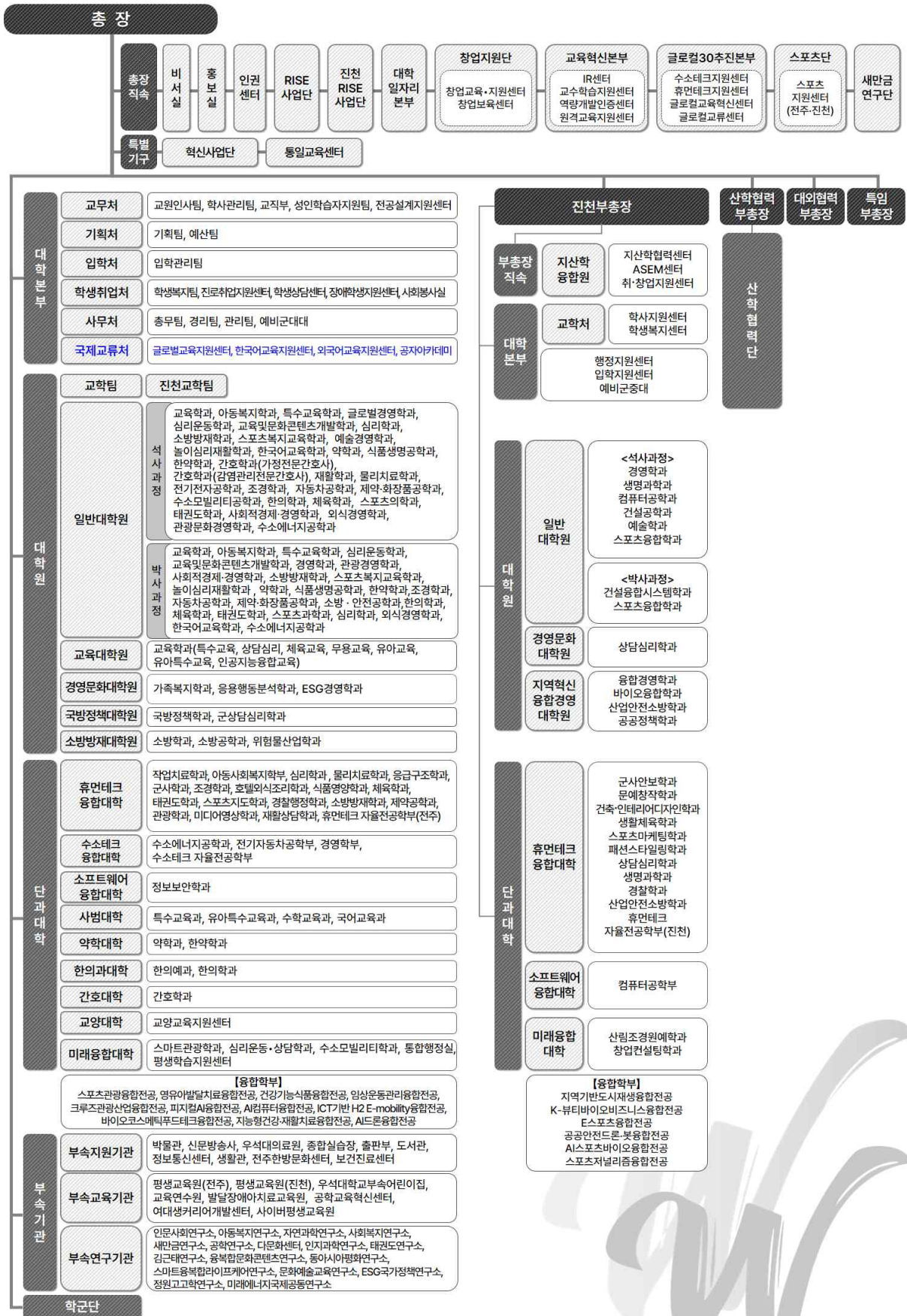
2.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79	•전주우석여자대학 설립, 초대 학장 서정상 박사 취임
1980	•남녀공학으로 전환 ('전주우석대학'으로 교명 변경)
1982	•제2대 학장 양희천 박사 취임, 동산캠퍼스에서 삼례종합캠퍼스로 이전
1983	•일반대학원 설치
1986	•제3대 학장 양희천 박사 취임, 교육대학원 설치
1988	•제4대 학장 강한영 박사 취임
1990	•제5대 학장 최일운 박사 취임
1992	•종합대학으로 승격 ('전주우석대학교'로 교명 변경)
1994	•제6대 총장 김종철 박사 취임
1995	•'우석대학교'로 교명 변경, 경영행정대학원 설치
1998	•제7대 총장 장명수 박사 취임
2000	•우석학원 이사장 서창훈 박사 취임,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2003	•제8대 총장 김영석 박사 취임
2004	•산학협력단 창단
2005	•2주기 대학종합평가 3개 부문 우수대학 선정
2006	•교육인적자원부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2007	•제9대 총장 김영석 박사 취임, 제10대 총장 라종일 박사 취임
2008	•지식경제부 '2008 지역혁신센터(RIC)' 선정
2009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교직원과정 설치대학 평가 우수대학 선정
201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
2011	•제11대 총장 강철규 박사 취임, 우석대 산학협력단 ICR 국제인증원 ISO 9001:2008(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012	•2011년도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 획득(5년)
2013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선정, 교육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선정

연도	주요 내용
2014	- 제12대 총장 김응권 박사 취임, 충청북도 진천군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개교 -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I) 2개 사업단 선정,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2015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교육부 산학협력선도(LINC)육성사업 재선정
2016	-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I) 우수사업단 선정(태권도특성화사업단 영유아인재양성사업단) -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I) 추가 선정(6차산업형 기능성식품 글로벌 인재양성사업단) - 전국 학군단 종합평가 우수 학군단 선정
2017	-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주관,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 획득 - 교육부 주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기계자동차공학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 획득(5년)
2018	- 제13대 총장 장영달 박사 취임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컴퓨터공학과), 국방부 평가 우수 학군단 선정
2019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단계 진입 - 대학혁신지원사업 II 유형 선정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9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5년), -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주기 한의학 교육평가 '인증' 획득(4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 컨설팅 개선 '최우수 대학' 선정 2019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선정(식품생명공학과) - 교육부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2020	- 제14대 총장 남천현 박사 취임 - 대학혁신지원사업 II 유형 연차 평가 'A등급' 획득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 우수등급 획득 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선정(기계자동차공학과) - 고용노동부, 수소전기차 모빌리티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분산형) 수소추출시설 구축 사업 선정
2021	-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대학혁신지원사업 II 유형 연차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 컨설팅 '최우수 개선 대학' 선정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 -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거점 운영기관(다문화센터) 선정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교육부,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사이버평생교육원) 선정
2022	-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3.0) 육성사업 선정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튜터링 사업' 5년 연속 전북지역 주관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연차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 사업' 선정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 6년 연속 선정 - 전라북도,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사업 5년 연속 선정 - 대한장애인체육회, 학교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개방 지원사업 선정 - 여성가족부, 국제청소년리더국제교류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미래전기자동차분야) 주관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7년연속 선정
2023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8년 연속 선정 - 교육부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1차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연도	주요 내용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전라북도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선정
202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 4년 연속 최고 등급 '우수'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2년 연속 선정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 •제15대 총장 박노준 박사 취임 •통일부 '전북통일교육센터' 지정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 2년 연속 선정 •평생교육원, 행정안전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주관 '국가근로 취업연계 중점대학' 8년 연속 선정 •한국장학재단 주관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7년 연속 선정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10년 연속 선정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A등급'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 2차년도 성과평가 'A등급' •충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주관 교육기관' 지정
2025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종합평가 'A등급' 획득 •고용노동부 주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우수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 3년 연속 선정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3년 연속 선정

3. 행정조직 및 기구표 (2026년 현재 기준)



4. 교수직원·학생 현황 (2025. 4. 1. 기준)

가. 교수

구분	전임교원												겸임 교원	초빙 교원	강사	기타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정년	비정년	계	정년	비정년	계	정년	비정년	계	정년	비정년	계				
학부	107	3	110	22	11	33	48	52	100	177	66	243	72	21	111	23
대학원	1	0	1	0	1	1	2	1	3	3	2	5	2	2	18	216
계	108	3	111	22	12	34	50	53	103	180	68	248	74	23	129	239

나. 직원

학년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2024	117	39	111	267	43.8	56.2
2025	112	48	121	281	56.9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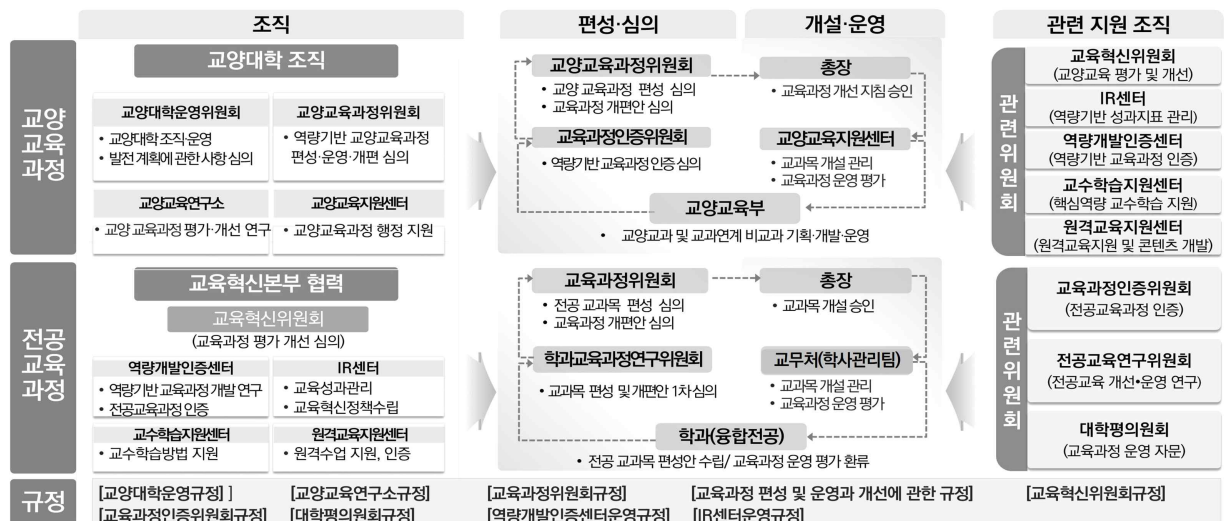
다. 학생

구분	학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총계
			교육대학원	경영문화대학원	국방정책대학원	소방방재대학원	지역혁신융합대학원	소계	
정원 내 재학생	5,263	243	171	49	33	17	10	280	5,786
정원 외 재학생	1,369	434	-	5	1	-	-	6	1,809
총계	6,632	677	171	54	34	17	10	286	7,595

5. 교육과정 편성 및 특성

가. 교육과정의 편성

-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대학 주관으로 교육혁신본부 및 관련 위원회의 협력·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편성함
- 전공 교육과정은 교무처 주관으로 교육혁신본부 산하 센터와 협력하여 전공교육 운영학과와의 편성(안)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함



나. 교육과정의 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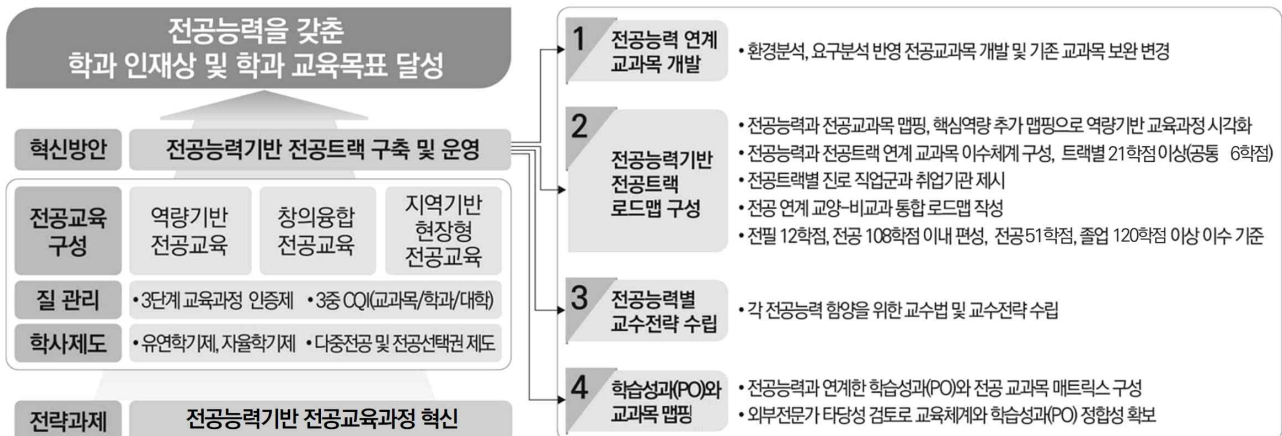
1) 교양 교육과정

- 대학의 3대 핵심역량(문제해결, 자기관리, 공감소통) 제고를 위한 교양 교과목을 편성 및 운영함

교과목 편성			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		
핵심역량	하위역량	과목 수			
문제 해결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35	편성 방침	• 학문발전과 사회수요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 편성방침 규정화('19) • 교양교육 분야별 (두레인성,글쓰기,외국어,IT)교양교육부 운영 규정화('23)	
	혁신	2			50
	지식정보기술활용	13	편성체계 및 이수학점	• 최소 30학점(졸업이수학점의 25%), 최대이수학점 제한 없음 • 교양필수(기초교양)11학점+교양선택(균형교양,글로벌교양)19학점	
자기 관리 역량	자기주도	8	편성·운영 특징	• 2025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수시개편에 따라 사회적 경향 반영한 교과목 명칭 변경 (글쓰기는 '창의적사고와글쓰기', 컴퓨팅사고는 'AI와컴퓨팅사고') • 교양필수 소통교육 '글로벌영어'는 단과대학별 분반을 구분하여, 학생맞춤형 강의 진행 • 교양교육 교과목 선택권 강화: 교양선택 5개 영역별 교과목 균형 편성 • 배분이수제 및 계열별 이수체계 적용 • 교과목별 핵심역량-학습성과 매칭 및 학습자 중심 수업 적용(다양한 수업 방법 활용)	
	목표관리	1			19
	도전실천	10			
공감 소통 역량	대인관계	13	54		
	의사소통	26			
	세계시민의식	15			

2) 전공 교육과정

- 전공 능력을 갖춘 학과 인재상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전공능력기반 전공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함



6. 주요 시설·설비 현황 (2025. 4. 1. 기준)

가. 교지 현황

구분	기준면적(m ²)		보유면적(m ²)	교지확보율(%)	
	입학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입학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전주캠퍼스	135,944	155,876	314,824	231.6	202.0
진천캠퍼스	34,536	34,504	114,720	332.2	332.5
총계	170,480	190,380	429,544	251.9	225.6

나. 교사 현황

구분	기준면적(m ²)		보유면적(m ²)					교사시설확보율(%)	
	입학정원기준	재학생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	재학생기준
전주캠퍼스	67,972	77,938	125,552	30,070	3,939	14,031	4,909	234.7	204.7
진천캠퍼스	17,268	17,252	35,432	6,972	548	371	151	248.7	249.0
총계	85,240	95,190	160,984	37,042	4,487	14,402	5,060	237.6	212.7

7. 예·결산 현황 (예산: 2025학년도, 결산: 2025학년도 기준)

가. 2025학년도 예산 현황

수입			지출		
과목	금액(원)	비율(%)	과목	금액(원)	비율(%)
- 등록금수입	50,727,482,000	57.77	- 보수	38,278,065,000	43.59
- 수강료수입	1,234,700,000	1.41	- 관리운영비	10,183,543,000	11.60
- 법인전입금	300,000,000	0.34	- 연구학생경비	36,590,174,000	41.67
- 기부금	431,500,000	0.49	- 교육외비용	185,209,000	0.21
- 국고보조금	24,658,975,000	28.08	- 전출금	-	-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400,000,000	0.46	- (예비비)	-	-
- 교육부대수입	4,973,323,000	5.66	- 자산및부채지출	2,574,886,000	2.93
- 교육외수입	581,606,000	0.66			
- 자산및부채수입	1,140,000,000	1.30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364,291,000	3.83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	-
총계	87,811,877,000	100.00	총계	87,811,877,000	100.00

나. 2025학년도 결산 현황

수입			지출		
과목	금액(원)	비율(%)	과목	금액(원)	비율(%)
- 등록금수입	57,178,346,897	55.65	- 보수	35,669,402,522	34.71
- 수강료수입	3,062,833,131	2.98	- 관리운영비	12,132,833,597	11.81
- 법인전입금	300,000,000	0.29	- 연구학생경비	39,892,433,427	38.82
- 기부금	512,346,639	0.50	- 교육외비용	130,559,522	0.13
- 국고보조금	29,868,749,354	29.07	- 전출금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300,000,000	0.29	- 예비비		
- 교육부대수입	4,370,856,140	4.25	- 자산및부채지출	8,118,522,453	7.9
- 교육외수입	585,208,482	0.57			
- 자산및부채수입	1,144,200,000	1.11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428,546,499	5.28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6,807,335,621	6.63
총계	102,751,087,142	100.00	총계	102,751,087,142	100.00



2025년 자체평가(종합) 보고서

제II장

종합 및 논의

1. 대학경영 및 사회적 책무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3. 교원 및 직원
4. 학생지원 및 시설

1. 강점

• [교육이념과 발전계획의 체계적 연계]

우석대학교는 건학이념인 「黃金百萬兩 不如一教子」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찰하는 SMART 우석인’이라는 인재상을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이를 중장기 발전계획인 「우석비전 2030」과 연결하여 대학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평가됨. 1.1 자료에서도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체계성, 교육목표의 명료성, 인재상 정립,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이 잘 제시되어 있음

• [중장기 발전계획의 구조화와 실행 기반 확보]

「우석비전 2030」은 4대 발전전략, 15개 전략과제, 41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연구·산학협력·대학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발전계획으로 제시되어 있음. 또한 설문조사, 공청회, 인터뷰 등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발전계획의 수립 과정에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KPI와 재정투자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법령상 위원회와 이사회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우석대학교는 대학평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이사회 등 법령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2025년 기준 대학평의위원회 11회, 기금운용심의회 3회, 등록금심의위원회 8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2회, 이사회 11회 운영 실적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이 모두 사전공개 되어 지고 있고 사후 회의록을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주요 의사결정기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구성원 참여와 소통 체계 운영]

구성원 의견수렴 측면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보완 과정에서 교원, 직원, 재학생 등 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FGI 19명, 공청회 297명 등 비교적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함. 또한 찾아가는 학생 간담회, 학과평가 기준 마련 과정의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소통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 대학 운영에서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확인됨.

• [감사제도와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 마련]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 구성, 감사 실시, 감사 결과 처분 및 이의신청 처리, 조치 결과 보고 및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정기감사는 5년 주기로 모든 행정부서 및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총장 지시나 부서장 의뢰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주요 재정 기준값 충족]

2025년 자체평가 자료 기준으로 볼 때, 재정 관련 주요 정량지표는 기준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은 최근 2년 평균 57.76%로 기준값 72% 이하를 충족하고, 세입 중 기부금 비율은 0.57%로 기준값을 충족하며,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은 0.41%로 기준값 0.4%를 충족함. 또한 교육비 환원율은 최근 2년 평균 182.5%로 기준값 1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 [성과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보]

우석대학교는 성과관리 규정, 자체평가 규정, 교육만족도 조사 및 활용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기획처 기획팀, 교육혁신본부 IR센터, 대학자체평가위원회, 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KPI 점검, 연차평가, 결과 공개, 개선과제 도출 등 성과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학생 충원 성과와 졸업생 진로 성과의 기준값 충족]

교육성과 영역에서는 정원내·외 재학생 충원율이 2023년 96.3%, 2024년 100.0%, 2025년 105.3%로 제시되어 있으며, 평균 100.53%로 기준값 85%를 충족함. 졸업생 진로 성과는 2025년 65.9%, 2026년 예측값 63.8%, 평균 64.85%로 기준값 55%를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됨.

• [건학이념과 연계된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협력 활동]

사회공헌 영역에서는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중 ‘헌신과 열정이 있는 봉사인 양성’을 기반으로 사회봉사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연탄나눔봉사, 김장나눔봉사, 임실호국원 1사 1묘역 가꾸기, 한의학 및 약학 분야 의료봉사, 상생협력 플로깅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으며,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진천군노인복지관 등 지역기관과의 협력도 확인됨.

2. 문제점

[법인전입금 비율의 연차별 하락에 따른 중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과제] 주요 재정지표인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의 최근 2년 평균(0.41%)은 대학 자체 기준값(0.4%)을 충족하고 있으나, 연도별 수치에서 하락세(2024회계연도 0.51% → 2025회계연도 0.31%)를 보이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대외 재정 환경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이 요구됨.

[정량적 교육성과 지표의 상시 모니터링 및 데이터 검증 체계 보완] 정원내외 재학생 충원율은 지속적인 상승세(2023년 96.3% → 2025년 105.3%)를 기록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졸업생 진로 성과의 경우 실질적인 정량 데이터의 다년도 추적 및 체계적 추적 조사보다 단년도 실적과 예측치(2026년 예측값 63.8%) 중심의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지표 산출의 정밀성과 대외 신뢰도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성과관리체계(KPI)의 제도적 정착 대비 실질적 환류 및 개선 성과 연계 미흡] 기획처 기획팀, 교육혁신본부 IR센터 등 성과관리를 위한 규정과 조직 인프라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KPI 점검 및 연차평가 결과가 대학 경영의 취약 지표 개선, 예산 배정, 행정 제도 개편 등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실질적인 경영 혁신을 견인하는 환류(Feedback) 성과 제시는 부족한 실정임.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활동의 양적 실적 편중 및 질적 효과 측정 한계] 건학이념인 ‘헌신과 열정이 있는 봉사인 양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과 지역기관 협력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주로 프로그램 수나 참여 인원 등 양적 실적 중심으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수혜자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 효과 분석, 학생 역량 변화 등 실질적인 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가 미흡함.

[대학자체평가 체계와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의 유기적 연계 부족] 대학자체평가 지표 운영 및 거버넌스 체계가 고도화되고 있으나, 상시적인 대학 질 관리 체계가 대외적인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기준과 긴밀하게 동기화되지 못하여, 평가 주기별 지표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3. 제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인 재원 확충 및 중장기 재정 리스크 관리 강화] 연도별 하락세를 보인 법인전입금 비율 등의 취약 재정지표를 집중 관리 지표로 지정하고, 대학의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 및 재정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법인의 실질적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교육성과 지표의 정밀 예측 및 데이터 기반 추적 관리 체계 고도화] 재학생 충원율의 안정적 유지 기조 속에서, 졸업생 진로 성과 등 다년도 분석이 필요한 핵심 정량 지표의 산출식을 표준화하고, 단순 예측치 의존을 지양하여 실질 데이터 기반의 장기적 추적조사와 성과 분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표의 신뢰성을 극대화할 것을 제언함.

[성과평가 결과의 실효적 환류 활성화를 통한 대학 경영 개선 성과 창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핵심 개선과제와 KPI 미달 지표 원인 분석 결과를 차년도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제도 개선안에 강제 환류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함으로써, 단순히 제도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대학 체질 개선 사례를 확보해야 함

[지역 상생 중심의 사회공헌 질적 성과 지표 개발 및 환류 체계 구축] 양적 실적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수혜자 만족도 조사, 지역기관 평가 피드백, 전공 연계 봉사 성과 등 질적 성과 지표(KPI)를 도입·다변화하고, 수립된 지역사회 수요와 의견을 차년도 봉사 정책에 반영하는 지역 밀착형 질 관리 환류 체계를 정착시킬 것을 제언함

[대학자체평가-기관평가인증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상시 통합 질 관리 체계 정착] 대학 자체평가 편람과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핵심 조건을 상호 연계하여 지표와 산출식을 정비하고, 정량·정성 지표 전반의 충족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거버넌스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착시켜 대외 평가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1. 강점

- [핵심역량 기반의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 체계 구축] 우리 대학은 ‘성찰하는 SMART 우석인’이라는 인재상을 기반으로 교양·전공·비교과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개선에 관한 규정」,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등 체계적인 규정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환류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특히 교육과정위원회,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 심의 및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2023년 13건에서 2025년 25건으로 확대되는 등 교육과정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균형 있는 학점 구조와 학생 선택권 확대] 일반학과 기준 졸업 이수 학점 구조를 교양 25%, 전공 42.5%, 일반선택 32.5%로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융합전공·연계전공·마이크로디그리·학생자율설계전공 등 다양한 다전공 체계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진로 다양성과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2025학년도 졸업자 중 다전공 이수 학생 비율이 21%(294명) 수준으로 나타나 학생 중심 학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평가됨.
- [교양 및 전공교육의 질 관리 성과 확보] 교양교육과정에서는 교양필수 36.7%, 교양선택 63.3%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5명 이하 강좌 비율 26.8%, 26~100명 강좌 비율 72.8%, 101명 이상 대형강좌 비율은 0.4%에 불과하여 대규모 강좌를 최소화하고 있음. 또한 전임교원의 교양교과목 담당 비율이 71.0%로 나타나 양질의 교양교육 제공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미래사회 수요 기반의 융복합 교육혁신 추진] 전공교육과정은 AI·디지털헬스케어·푸드테크·문화콘텐츠 등 미래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융합형 교육과정을 적극 운영하고 있음. 특히 학과별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인증제와 CQI 환류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심리상담, 푸드테크, 태권도콘텐츠창업 등 다양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운영을 통해 실무 중심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안정적인 전임교원 확보 및 수업 질 관리 체계] 최근 3년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평균 71.7%, 평균 강의시수는 11.2 시간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평가 참여율도 최근 3년 평균 88.9%로 높게 나타나 수업 질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LMS), ZOOM 기반 실시간 원격수업, 병행강의실 79개(전주 50개, 진천 29개), 블랙스튜디오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고도화하였음.
- [학업성적 부진 학생 예방 지원체계 구축] 학업성적 70점 미만인 학업성적 부진 학생은 학사경고 65점 미만이 되지 않도록 지도교수 및 학습법 향상을 위한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사경고를 예방하는 지원체계를 갖추. 이는 학업성적 부진 학생을 단순 사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업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도교수 및 학습지원 부서가 협력하여 학업 지속을 지원하는 예방적 학사관리 체계를 구축함.
- [전문 인력 기반 교수-학습 지원체계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학 박사 전임교원 1명, 전임 연구원 3명, 교육매체 지원 전문인력 2명 등 총 7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교수지원·학습지원·원격교육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2025학년도 교수-학습 지원 예산 집행률은 98.5%로 높게 나타나 교수·학습 지원체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2. 문제점

-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양교육 체계 안정성 저하 우려] 최근 졸업학점 축소(130학점 → 120학점)와 교양 최소 이수학점 조정(40학점 → 34학점 → 30학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양교육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 기초학업역량 유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특히 교양필수 적용 제외 확대와 학사제도 변화가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감소] 전공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과 수가 2023년 18개 학과 24개 프로그램에서 2025년 14개 학과 15개 프로그램으로 감소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수업평가 하위 교원 환류 제도의 한계] 수업평가 점수가 낮은 하위 교원을 선정할 때 상대비율(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교수 전반의 절대적인 수업 품질 향상과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
- [전주·진천 이원화 운영에 따른 교육지원 기능 불균형] 현재 교육혁신본부(IR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역량개발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국제교류처,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주요 교육지원 조직이 전주캠퍼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천캠퍼스는 학사지원센터 및 학생복지센터 중심의 제한적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진천캠퍼스 학생들은 교수-학습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진로·취업·국제화 지원, 장애학생 지원 등의 접근성 측면에서 상대적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행정 공백과 신속한 대응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제언

- [교육성과 기반 학사구조 개편 모니터링 강화] 졸업학점 및 교양 최소 이수학점 축소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기초학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교과목·학과·대학 단위의 3중 CQI 체계와 핵심역량 진단(W-CESA) 결과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성과 기반의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생 참여형 교과·비교과 연계 활성화] 비교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형 수업, PBL(문제중심학습), 현장실습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공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실질적 전공역량 향상 및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이 필요함.
- [전주·진천 통합형 교육지원체계 구축] 양 캠퍼스 간 교육지원 기능의 표준화와 균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교수학습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체계, 국제교류 지원, 창업 및 취업지원 기능 등을 진천캠퍼스까지 확대 운영하거나, 진천캠퍼스의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실 비중을 추가 확대, 온라인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캠퍼스 간 교육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LMS·원격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캠퍼스 통합형 교수-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학사·수업·비교과·학생지원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교육성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캠퍼스 간 교육 품질 편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역량 강화 및 수업 질 관리 체계 개선] 수업평가 결과 활용 시 상대평가 중심의 하위교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절대평가 기준을 병행 적용하여 교수 전반의 강의 질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성형 AI 활용 교수법,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학생 참여형 수업방법 등에 대한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미래형 수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강점

- [교원·직원 확보 기준 충족을 통한 교육·행정 지원 기반 확보] 의학계열을 제외한 최근 2년 평균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66.3%로 기준값 64%를 충족하고 있음. 직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최근 2년 평균 28.7명으로 기준값 70명 이하를 안정적으로 충족하여 교육 지원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인력 기반을 갖추고 있음.
-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원·직원 임용 절차 운영] 전임교원 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발표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전공심사 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직원 임용 역시 관련 법령과 직원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공개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음.
- [규정 기반의 교원 인사·업적평가 체계 정착] 교원 인사와 업적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포상 등에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정년보장심의위원회 등 심의 기구를 통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음.
- [교원 처우·복지 및 연구활동 지원 체계 유지] 교원 보수와 강사 강의료는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와 연구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교원의 처우 안정성과 연구활동 기반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있음.
- [직원 복지와 업무역량 개발 지원체계 운영] 직원 보수는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모든 직급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함. 또한 법정 근무시간 준수, 초과근무 사전허가, 대체휴무 및 보상휴가, 방학 중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근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직원 업무역량 개발을 위해 직급별·직무별 교육, 생성형 AI 활용 교육, 학습동아리, 혁신마일리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적절히 지원되고 있음.
- [캠퍼스별 행정지원 창구 운영을 통한 현장 대응 기반 마련] 전주캠퍼스에 주요 행정부서와 전문 지원기능을 두고, 진천캠퍼스에는 학사지원센터, 학생복지센터, 취·창업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 진천교학팀 등 현장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이원화 캠퍼스 체제에서 기본적인 학사, 학생 지원, 행정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2. 문제점

- [전임교원 확보율의 연차별 하락세] 최근 2년 평균 교원 확보율은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으나,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2025년 65.8%에서 2026년 60.6%로 하락하였음. 향후 학생 수 변동, 교원 퇴직, 학과 개편 등이 중첩될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비정년트랙 및 비전임교원 비중에 따른 교육 지속성 관리 필요] 전체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의 비율이 32% 수준이며, 전체 교원 중 비전임교원 비중도 높은 편임. 이는 단기적으로는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학과 발전계획, 학생지도,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남김.
- [학과 개편 및 소속 변경 증가에 따른 조정 부담] 대학 구조개혁과 학과 개편 과정에서 교원 소속 변경 신청 및 실제 변경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소속 변경은 학사 구조 개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나, 변경 이후 전공 적합성, 교육과정 배정, 연구 정체성, 학과 내 역할 정착을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구지원 재원의 연도별 편차와 성과관리 필요]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으나, 연도별 지원 규모의 편차가 나타남.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단년도 대응자금 중심의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내 연구지원 체계와 성과 환류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직원 인력 구조와 업무 부담의 지속 관리 필요]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으나, 2025년 27.1명에서 2026년 30.2명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국고지원사업 등 사업 기반 인력 운영으로 계약직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 사업 종료나 재정 변동 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전주·진천캠퍼스 이원화 운영에 따른 조직 운영 효율성 점검 필요] 진천캠퍼스에는 학사, 학생복지, 취·창업, 행정지원 등 현장 지원 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캠퍼스별 조직이 확대되면서 행정기능의 중복, 의사결정 경로의 복잡화, 업무 책임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전문 행정기능은 전주캠퍼스 본부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진천캠퍼스에는 현장 대응 조직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본부 기능과 현장 창구 간 역할 분담 및 업무 연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제언

- [전임교원 확보율 관리를 위한 중장기 충원계획 정교화] 전임교원 확보율 하락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과별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 규모, 퇴직 예정 인원, 구조개편 방향을 종합 반영한 중장기 교원 충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년트랙 전임교원 확보를 대학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최소 확보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연차별 충원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비정년트랙·비전임교원 운영의 질 관리 강화] 비정년트랙 및 비전임교원은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자원이지만, 교육의 연속성과 학생지도 책임성 측면에서 별도의 질 관리가 필요함. 교원 유형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우수 교원에 대한 다년제 계약, 처우 개선, 정년트랙 전환 가능성 등 안정적 경력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과 개편에 따른 교원 소속 변경 지원체계 마련] 소속 변경 교원이 새로운 학과와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공 연계성 검토, 강의 배정 조정, 융합연구 지원, 학과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소속 변경이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학사 구조 개편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
- [직원 인력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 직원 1인당 학생 수 증가와 사업 기반 인력 비중 확대에 대응하여 부서별 업무량, 학생지원 수요, 국고사업 운영 규모를 반영한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직무전문성 개발, 핵심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함.
- [교원 연구지원과 직원 역량개발의 환류 고도화] 교원 연구지원은 연도별 재정 편차를 줄이고, 연구성과와 연계된 안정적 지원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직원 역량개발은 생성형 AI, 데이터 기반 행정, 학생지원 서비스 개선 등 대학 환경 변화와 직접 연결되도록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교육 참여 결과를 업무평정 및 인사 환류와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전주·진천캠퍼스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 진단 및 기능 재설계] 전주와 진천캠퍼스의 이원화 운영 방식이 행정서비스의 형평성뿐 아니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진천캠퍼스에 전주캠퍼스와 유사한 행정부서를 독립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본부 중심의 전문 기능과 진천캠퍼스 현장 창구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부서별 업무분

장, 결재 권한, 민원 처리 절차, 담당자 연결 체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본부부서 담당자의 정기 파견, 원격 행정지원, 통합 민원 접수 시스템, 캠퍼스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 접근성은 보장하되, 조직 중복과 운영 비효율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캠퍼스 행정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1. 강점

• [안정적 장학 지원 체계와 다양한 맞춤형 장학제도 운영]

학부 최근 2개년 평균 장학금 비율은 17.15%로 대학 자체 기준값인 12%를 안정적으로 상회하고 있음. 우석희망장학금, 우석나눔장학금, 입학드림장학금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석챌린지장학금, 창업도전과 실패장학금 등 총 36종의 교내장학금을 운영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사설기관과 연계한 약 60종의 교외장학금 체계를 구축함. 국가·지자체·사설기관과 연계한 약 장학위원회 심의와 「장학규정」, 「교내장학금시행규칙」에 근거한 운영으로 제도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체계 정착]

「학생생활규정」에 근거하여 총학생회, 학과(부) 학생회, 생활관생위원회, 신문방송사 등 학생자치기구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자치장학금과 학생활동 지원 실적을 매년 확대함. 「학생활동안전관리규정」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행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와 정기 안전교육을 운영하며, 학교안전사고공제·연구활동중사자공제보험에 전 학생이 의무 가입하도록 하여 사고 대응 환류 체계를 구축함.

• [전문 인력 기반의 학생 심리상담 및 권익보호 체계 고도화]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상담위원·전임상담원·직원상담원·인턴상담원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위기학생 집중케어를 체계적으로 운영함.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도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위험군 선별, AI·메타버스 활용 학생 개입 프로그램 개발, 지역 유관기관·전문기관과의 협력 확대로 맞춤형 심리 지원을 강화함. 또한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센터규정」을 정비하고 폭력예방교육(이수율67.46%, 만족도4.56점)과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학생 권익보호와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지원함.

• [체계적 진로·취창업 지원 인프라와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

졸업생 취업률 최근 2개년 평균이 64.85%로 기준값(55%)을 충족하고, 진로취업지원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창업교육지원센터, 글로벌스타트업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과 자격을 갖춘 취·창업 지원 조직을 운영함. CHAMP 4단계 체계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 수와 예산 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취·창업 단계별 만족도가 대부분 4.6점 이상으로 높게 유지됨. RISE사업·산학협력 체계와 연계하여 창업교육·보육·글로벌 창업지원을 추진함.

• [기준값을 상회하는 우수한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 환경]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2.99㎡)과 실험·실습실 면적(4.65㎡)이 기준값(각1.2㎡, 2.5㎡)을 크게 상회하며,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최근 3년 평균(429.46천원)도 기준값(224.84천원)을 충족함. 노후 책걸상, 강의장비, 냉난방기, LED 조명 교체와 스마트 강의실, 실습실 구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정밀안전진단과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연 4회 안전교육과 기자재운영위원회 심의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운영함.

• [기숙사 및 학생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기숙사 수용률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원거리 학생, 사회적 배려계층,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한 선발 체계를 운영함. 기숙사생 1인당 면적 17㎡, 중앙 클라우드 기반 냉난방, 정기 방역, 위생관리, 무인경비·지문인식 출입·CCTV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 체육시설·보건진료센터·식음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생활관규정」, 「학생복지시설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 [도서관 학습지원 및 정보화 인프라 강화]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2개년 평균 55,518.6원)와 재학생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2개년 평균 1.08명)가 기준값을 충족함. 중앙도서관 서가 교체, 진천도서관 공간 리뉴얼, Media Studio·3D프린터 실습실 구축 등 학습 친화형 공간 개선을 추진하고, 전자자료통합검색·열람실 좌석배정·교외접속·다국어 홈페이지 등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함. 독서문화프로그램, 논문작성·통계분석 교육 등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역량 향상을 지원함.

2. 문제점

- [취약계층 장학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의 안정적 확대 필요]

우석희망장학금 등 일부 취약계층 장학금의 연도별 집행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의 안정적 확대가 요구됨.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 등 소수집단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체계 및 규정의 추가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캠퍼스 간 학생지원·복지 인프라의 편차]

학생자치활동 공간(전주 56실 규모 대비 진천 11실 규모)과 복지시설·기숙사 운영 규모에서 전주·진천 캠퍼스 간 차이가 존재함. 기숙사 만족도와 학생복지시설 만족도 조사에서도 진천캠퍼스의 응답 규모와 일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캠퍼스 간 균형 있는 시설 개선과 학생활동 공간 확충 요구가 제기됨.

- [창업지원의 실질 성과 확대 한계]

창업지원 인프라와 예산은 확대되고 있으나 창업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15.3%)과 참여 학과의 다양성이 제한적이며, 자체 진단에서도 교비 예산 부족과 투자유치 기회 부족이 한계로 지적됨. 창업 단계 중 ‘지역연계 사업화 준비’ 단계는 만족도 측정 실적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 창업 성과로의 연결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심리·정서 고위험군 증가에 따른 대응 부담 확대]

학업중단 위험군, 심리정서 고위험군, 대학생활 부적응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라 전문상담 인력과 지속적 사례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음.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2023년 653명에서 2025년 1,111명으로 급증하였으나 다국어 통·번역을 포함한 전담 심리지원 체계는 구축 단계에 있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인력 확충과 조기 개입체계 강화가 요구됨.

- [권익보호 운영의 투명성·환류 신뢰도 제고 과제]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 학생 권익보호 영역(3.71점)과 불만·건의 처리의 신속성·공정성(3.72점) 등이 타 영역 대비 낮게 나타남.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 환류 체계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도출되어, 사건 처리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3. 제언

-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장학·상담·진로취업·복지 지원을 연계한 학생 통합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수집단 학생을 위해 신청-상담-지원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규정을 확대·정비할 것을 제언함.

- [진천캠퍼스 학생지원 및 복지 인프라 단계적 확충]

진천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 공간, 복지시설, 학습지원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캠퍼스 간 학생지원 격차를 완화해야 함. 도서관·학생복지시설의 환경개선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고, 캠퍼스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설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정착시킬 것을 제언함.

- [데이터 기반 심리·학습지원 및 예방 중심 케어 강화]

심리정서 진단, 학습부진, 중도탈락 위험요인 등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학생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간이정신진단검사·실태조사 데이터를IR 분석과 연계하여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식별해야 함. AI·메타버스 기반 상담 및 다국어 통·번역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예방 중심의 학생 케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제언함.

- [미래형 취·창업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대]

RISE사업 및 지역산업 연계 기반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업 참여 학과 다변화와 창업보육·사업화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함. 창업 장학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고, 도서관의 디지털 학습공간과 미디어·AI 기반 학습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추진할 것을 제언함.

- [권익보호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환류 신뢰성 제고]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환류 신뢰도 제고 과제에 대응하여, 인권침해 사건 처리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방식을 표준화·명확화함으로써 학생이 절차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처리 결과에 대한 환류 공개와 정기적 실태조사를 결합하여 학생 권익보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언함.